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전략

다이제스트

2018

2018 전략 다이제스트
목차

지휘부

3 대사관 서신
5 사령관 메시지

사령부

27 유엔군사령부
29 연합사령부
31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 구성군

33 미8군
35 미7공군
37 주한미해병대
39 주한미해군
41 주한미특전사령부

한국 및 동북아지역

7 전략적 환경
9 북한의 위협
13 대한민국
15 한미 동맹

캠프 험프리스

역량

17 한미 역량
21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
23 주한미군의 혁신

지역 사회 + 변환

43 부대 이전
45 지역 사회 관계
47 미래 지향적 동맹

표지 사진

1.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수중폭파반 (알프레드 A. 코필드 (Alfred A. Coffield) 3급 홍보 담당)
2.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마이클 R. 펜스 미국 부통령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3. KMEP 17-8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 (티아나 보이드 (Tiana Boyd) 일병)
4. 연합사 부사령관 김병주 대장 (모니크 판 (Monik Phan) 하사)
5. KMEP 17-5 훈련에 참가한 미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 (사진 제공: 주한미군)
6. 공동경비구역의 한미 대원 (사진 제공: 한국 해병대)
7. 제12차 브래들리 포격 시험에 참가한 미군 대원 (패트릭 이킨 (Patrick Eakin) 병장)
8. 국제 지도자들과 함께한 미8군 지원부사단장 알란 드블리크 소장 (아이제이아 베가 (Isaih Vega) 일병)
9. 오산 공군기지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맞이하는 마크 내퍼 미국 대사 대리와 브룩스사령관 (사진 제공: 미국 국무부)
10. KMEP 17-13 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병대 수륙양용장갑차 (애런 S. 패터슨 (Aaron S. Patterson) 상병)
11. 한국 국방부와 유엔사 주관 유해 송환식 (조병욱 상병)
12.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앰버 I. 스미스 (Amber I. Smith) 병장)
13. 다국적기뢰전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 대원 (조던 크라우치 (Jordan Crouch) 2급 홍보 담당)
14. 브룩스 대장과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사진 제공: 주한미군)
15. 제2사단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사진 제공: 미국 육군)
16.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브룩스사령관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17. 연합사를 방문한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 (조병욱 상병)
18. 다국적기뢰전 훈련에 참가한 한미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 (윌리엄 칼라일 (William Carlisle) 홍보 담당)
19.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을 만난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대장 (앰버 I. 스미스 (Amber I. Smith) 병장)
20.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과 마리스 페인 국방부 장관 (사진 제공: 호주 국방부)
21. 워리어 스트라이크 5 훈련에 참가한 한미 육군 (조나단 카미어 (Jonathan Camire) 대위)
22.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쉴라 크레이그헤드 (Shealah Craighead))
23. 부산에 입항한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전단 (마이클 가자 (Michael Garza) 상사)
24. 브룩스사령관과 버저슨 중장을 만난 미국 합참의장 조셉 F. 던포드 주니어 대장 (도미니크 A. 피네이로 (Dominique A. Pineiro) 하사)
25. 한국에 도착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라신 더글라스 (Rasheen Douglas) 하사)
26. 한국과 콜롬비아 장교 (사진 제공: 유엔사)
27.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토리 W. 리 (Torrey W. Lee) 1급 홍보 담당)
28. KMEP 17-14 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 (애런 S. 패터슨 (Aaron S. Patterson) 상병)
29. 한국 공군 F-15와 비행 중인 미국 공군 B-1B 랜서 (사진 제공: 한국 공군)
30.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 후방 지휘소 (CP OSCAR) 에 위치한 유엔사 대원 (사진 제공: 유엔사)
31. 비질런트 에이스 18 훈련에 참가한 미국 공군 대원 (프랭클린 R. 라모스 (Franklin R. Ramos) 하사)

2018

전략 다이제스트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 사령부 전략보좌관단 (Commander's Strategic Initiatives Group) 전략커뮤니케이션처 (Communications Strategy Division) 에서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입니다. 편집 내용은 평문으로서 사령부 산하 기관의 공동 노력을 반영하며 폭넓은 전파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각 출처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선임 편집자
브라이언 하웰 (Brian Howell) 대령
전략커뮤니케이션처장

프로젝트 관리자/사진 편집자
랜스 나카야마 (Lance Nakayama)

내용 편집자
데이나 다멜리오 (Dana D'Amelio)

미술 감독/디자인
조슈아 바인더 (Joshua Binder)

편집위원단
조셉 털 (Joseph Tull) 소령
필립 크릭범 (Philip Krigbaum)
태 김 (Tae Kim)
성이 최 (Sung Yi Choi)

지휘부

미국 국무부

대사관 서신

마크 내퍼 대사 대리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이라는 호된 담금질을 견디며 탄생한 한미 동맹은 정치, 안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증진하며 거의 70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대리로서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국과 협력하여 동맹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 파트너로서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을 둔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 법치를 강력히 수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양국의 헌신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연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양국 동맹의 초석이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관계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넓고 깊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활기찬 무역 파트너십, 문화 교류, 폭넓은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주, 사이버 안보, 환경, 에너지, 세계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도 계속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주한미군의 변함없는 결의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지치지 않는 사명감으로 노력하는 주한미군 덕분에, 우리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경제 협력 및 문화 교류를 풍성히 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한미 관계의 초석이며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성공적인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상징이자 동아시아 및 세계 안정의 원천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서울의 주한미대사관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우리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함께 이 중요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유익한 결실을 맺는 또 한해를 다시 한 번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E. 내퍼 (Marc E. Knapper)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사진: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위: 2017년 6월 21일 브룩스사령관 및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자리한 내퍼 대사 대리

사진: 주한미대사관

맨위: 2017년 11월 15일 김현미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을 예방 중인 내퍼 대사 대리

아래: 2017년 7월 7일 전라남도 장흥 뮤직 페스티벌을 준비 중인 뮤지컬학과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동서대학교를 방문한 내퍼 대사 대리

사진: 주한미대사관

위: 2017년 8월 14일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윤숙자 교수와 함께 평창 선수촌 한식 메뉴를 맛보고 있는 내퍼 대사 대리

사진: 주한미대사관

사진: 주한미대사관

2017년 10월 25일 미국과 한국의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선수들을 환영하는 주한미대사관 직원

지휘부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빈센트 K. 브룩스 대장

(GENERAL VINCENT K. BROOKS) 의 인사말

한반도에서 약 2년 동안복무한 현 시점에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일하고 많은 것을 달성한 미국, 한국, 유엔사 파견국 전장병과 민간인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며 미국과 한국은 더 가까워졌고 기존의 굳건한 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역경에 함께 맞서온 우리만의 결속력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거치며 오히려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더불어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한미 동맹의 결의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7년 4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를 한국에 성공적으로 배치하여 미사일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더불어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 군수품의 공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10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3대를 동원한 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대응 옵션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질런트 에이스 (VIGILANT ACE) 훈련 역사상 처음으로 F-22와 F-35를 동원하여 최신 역량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연합 공중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합 훈련 참가 경험을 보유한 순환 부대를 지속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구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8군이 용산에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용산 기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하는 첫 번째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주한미군은 올 여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해군은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한국군 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완벽히 융화되어 생활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유엔사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파견국들의 비전투원 후송작전 훈련 참여가 늘어났고 파견국 부대의 유엔사 후방사령부 방문도 6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파견국과 정보 공유, 상호운용성, 연합 훈련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사령부 소속의 모든 장병과 민간인 직원 그리고 가족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종 훈련, 참여, 작전, 주요 병참 이동, 행정 및 기타 업무에서 훌륭하고 헌신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8년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된 우리 팀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Kamsa Hamnida 감사합니다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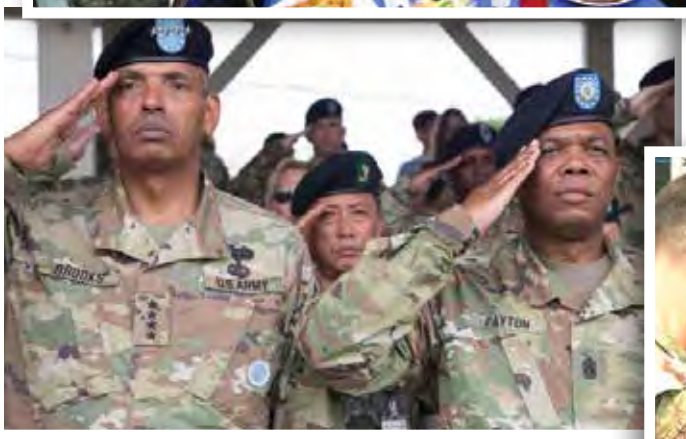
> ***"한미 동맹은 공통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혈맹입니다. 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상호 협력은 앞으로도 공통된 사회 및 문화 가치를 공유한 동맹에 기여할 것입니다."***
>
> *- 연합사령부*
> *지상군구성군 사령부*
> *부사령관 김병주 대장*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왼쪽: 2017년 3월 17일 캠프 보니파스에 주둔한 대원들을 격려하는 브룩스사령관

아래: 2017년 8월 22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연합사령관 브룩스장군과 부사령관 김병주 대장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위: 2017년 7월 18일 제2사단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브룩스사령관과 페이튼 주임원사

미셸 U. 블레쌈 (MICHELLE U. BLESAM) 병장

오른쪽: 2017년 8월 28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 제2사단장 스콧 맥킨 소장과 대화 중인 브룩스사령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십시오!

미국 의회: 더 가까워집시다!

사령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연중 의회 대표단의 방문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령부 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영내 시설을 참관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작전 환경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다양한 사안에 관여함으로써 우리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학계: 함께 참여합시다!

사령부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주제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가 및 학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국, 미국, 기타 국가의 싱크탱크 및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전략적 메시지를 조율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산업계: 함께 공유합시다!

사령부는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뛰어난 인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반도에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 지도자들과 함께 첨단 접근법을 논의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사령부의 국내외 친구들: 팔로우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십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에서 사령부를 팔로우하여 사령부 **소식, 이벤트, 최신 소식을** 알아보십시오!

한국 및 동북아지역

전략적 환경

한반도의 분단은 그동안 이 지역과 세계에 유례 없는 과제를 안겨왔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김' 정권은 북한 내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불안정과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의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비무장지대 (DMZ) 내 폭력을 불허하는 1953년 정전협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전략 환경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들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인 분쟁, 상호 맞물린 관계,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다양한 국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복잡한 환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

북한

북한은 세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은 국제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며 꾸준하고 빠른 속도로 대량 살상 무기 (WMD) 를 개발하고 시험하여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2017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은 물론 ICBM 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까지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국 영토인 괌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국과 언쟁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국제 사회가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특수부대와 사이버 부대의 핵심 역량까지 추구하며 확장일로에 있는 WMD 역량을 더욱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강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세계 곳곳에 특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심 국가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긴밀한 "순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비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며 다자간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를 배치한 것에 항의하며 경제 보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천명하였으나,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북한의 안정 유지이며 이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

2016년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더욱 성장한 한국은 국가 근본인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자 한국은 첨단 국방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2017년 THAAD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온전한 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아시아 순방 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지정학상 동북아시아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반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역할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7월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 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초에는 한미 합동 공중 훈련에 대응하여 핵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 인근으로 출격시킴으로써 분쟁 억제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북한의 도발이 더욱 빈번해지고 대담해짐에 따라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확보를 위한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자국은 물론 지역 동맹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일본은 2018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미화 약 470 억달러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액을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군의 이지스 어쇼어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할당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재무장을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최근 양국은 다자간 협력, 특히 탄도 미사일 방어 및 훈련 분야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쉬 바인더 (JOSH BINDER)

다섯 손가락: 복잡한 역학 관계

한국전 이후 대북 접근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5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참가국이기도 한 이들 나라는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유엔 내 협력을 통한 다자간 제재로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강력한 주먹이 되는 다섯 손가락처럼 이들 나라는 한데 힘을 모아 협력할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지역 내에서 "다섯 손가락"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과제이지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과 공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북한은 이들 나라를 교란시키고 이간질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로 이해하고 일관된 목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다섯 손가락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정과 안보를 추구하는 데 하나로 뭉쳐 긴밀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및 동북아지역

북한의 위협
압박 수단의 다양화

2017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역량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은 국제 사회의 비핵화 요청을 무시하고 다자간 대북제재를 조롱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 옵션 중 하나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강압적인 행위와 수사적인 위협을 통해 현 상태로 정권 생존을 이어가거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의도 (정전 종료) 를 갖고 핵전쟁 가능성으로 위협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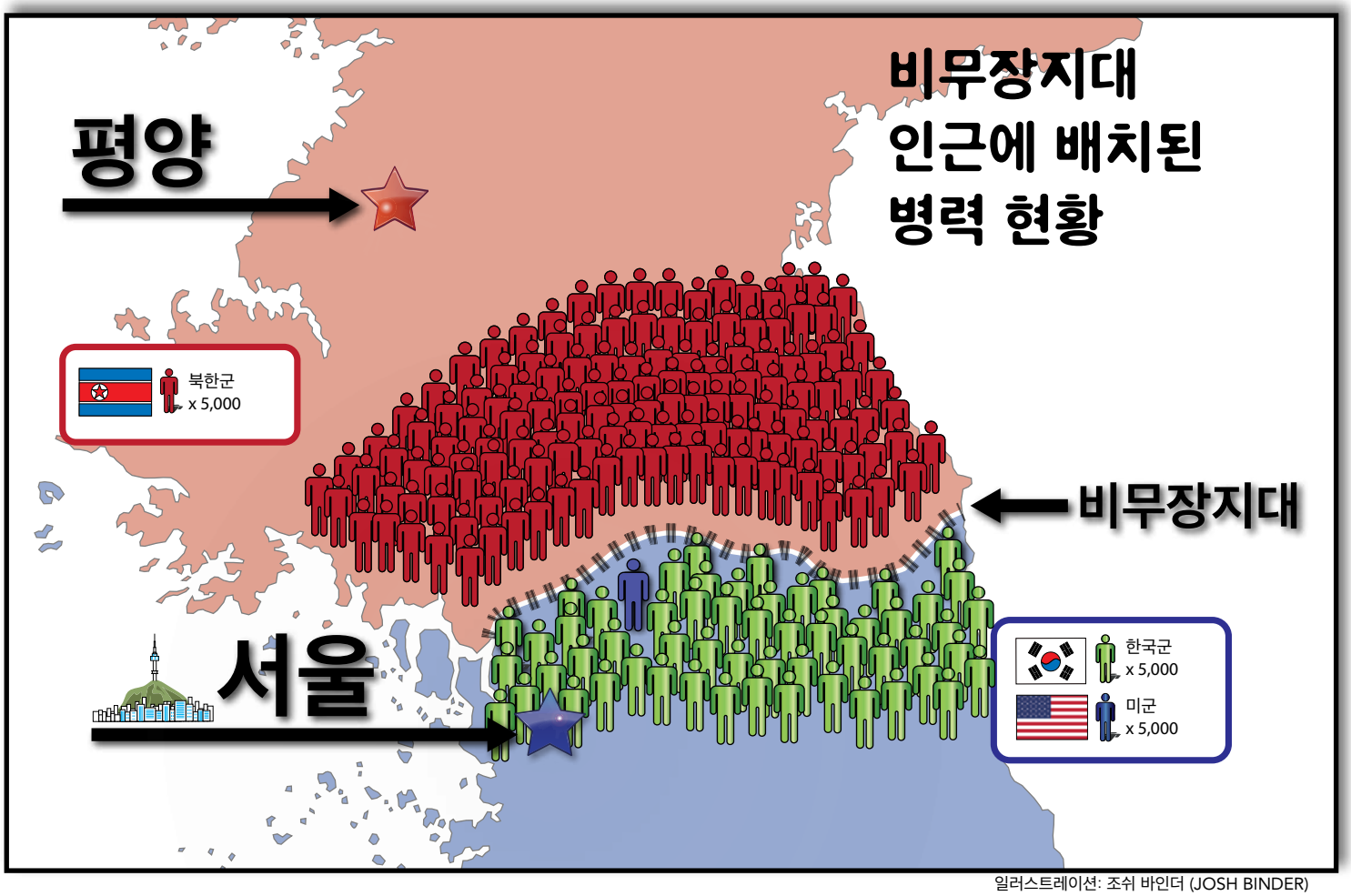
단기적으로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역량의 개발을 완료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2017년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개선, 다양화, 확대하기 위해 여러 사거리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고체 연료 추진체 및 유도 성능 강화 등 기술 개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은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 발사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ICBM 에 탑재할 수 있는 2단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역량과는 별개로, 북한의 이러한 행위와 메시지는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장착 ICBM 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세력 균형을 전복시킴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 억제력에 대한 김정은의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북한군의 재래식 병력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계 4위 규모의 군대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선군" 정책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 및 사회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군은 한미 동맹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의 시간과 노력을 한 곳에 묶어두는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시험 발사

조선중앙방송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조쉬 바인더 (JOSH BINDER)

열악한 재정과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 체계와 병력에 끊임 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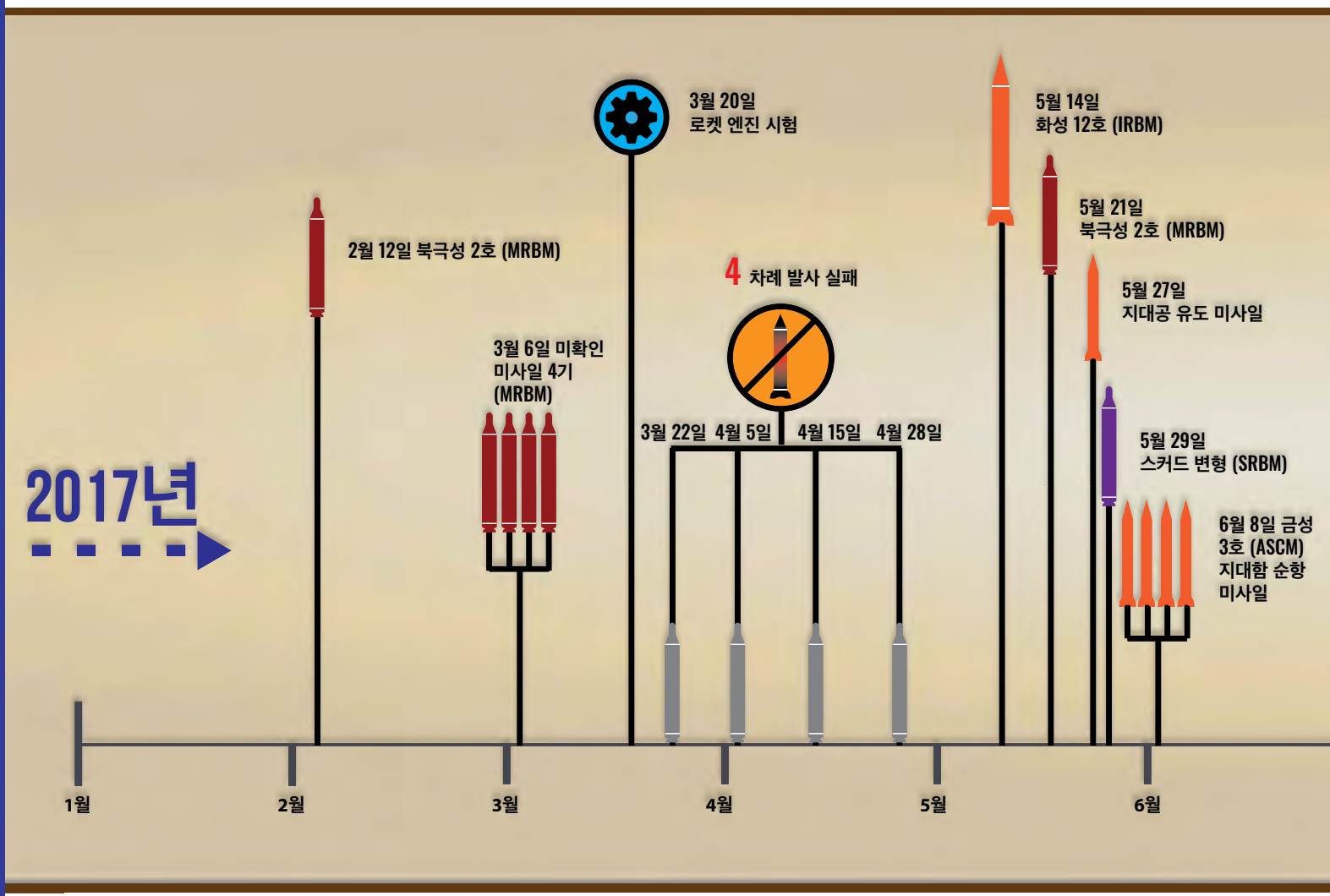
북한군은 대전차 무기, 대공 무기 체계, 포병 등 틈새 분야의 역량을 정교화하고있습니다.이러한틈새역량만으로인민군이전면전에서한미 동맹을상대할수는없겠지만앞으로도계속해서북한이한반도에서한국과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재래식 무기의 개량과 더불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비대칭 역량의 효율과 성능도 나날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군은 특수부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로운 정예 특수부대인 "번개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은 또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은 물론 김정은 정권을 위한 불법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5월 전 세계의 컴퓨터 시스템이 북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2016년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세계 각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8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6천 여명의 해커를 보유하고 꾸준히 사이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프로그램 추진 자금 확보는 물론 다른 국가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프라를 교란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핵무기 관계자를 지도하는 김정은

노동신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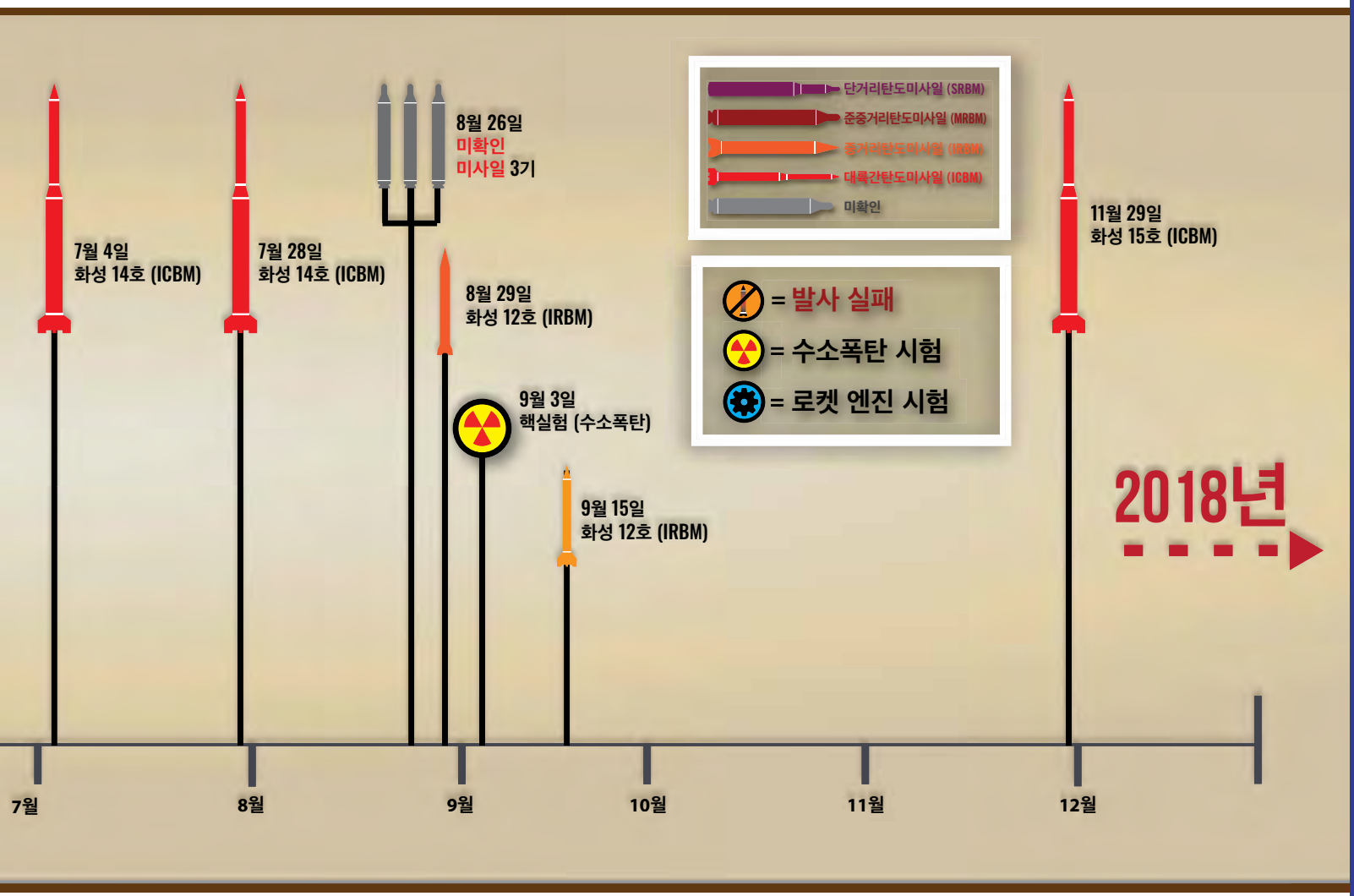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조쉬 바인더 (JOSH BINDER)

김정은은 핵 역량을 갖춘 군대가 있으면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어 대내적으로 본인의 자격과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즉 군대를, 적을 궁지에 몰면서 북한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개발과 함께 핵무기를 확장하는 "병진" 정책을 꾸준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외교 및 경제 제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축될 것이므로 자신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신과 체제의 존재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2016년 GDP는 4%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은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전에 이루어진 광업과 공공 분야의 성장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부문과 더불어 북한의 공인되지 않은 시장이 비공식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 제재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제 활동의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비공식 경제에 영향을 끼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각종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의 장기적 영향과 경제 체제의 구조적 변화 부족 때문에, 북한은 지난 해의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향후 수년간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재적 경제 파탄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 국민들 사이의 불만과 사회 불안에 대해 우려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본격 성장에 필수적인 사유화 확대 등의 경제 구조 개혁은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 및 사회 변화를 야기하여 김정은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앞으로도 단기적 경제 "전투"에 의존하여 노동력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북한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북한의 무역을 크게 위축시키고 경제 불안 요소를 악화시킬



노동신문 사진

오른쪽:
번개 부대

왼쪽: ICBM
시험 발사를
지도하는 김정은

조선중앙 TV 화면

경우, 북한 경제가 제재로부터 받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정을 저해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무모하게 추진하고 호전적 메시지와 도발적 행위로 지역을 위협하며, 공포와 위협에 기반한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 생활 수준의 근본적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김정은이 잠재적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암울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부터 대대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훼손하고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국제 환경 때문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은 내부 불만과 잠재적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외세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핵무기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야경을 장식하는 남산과 N 서울타워의 모습

김성진

대한민국

한국전이 끝나던 해인 1953년에 태어난 한국 여성은 올해 65세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인류가 달성한 가장 인상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를 평생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1953년 당시 한국인의 연평균 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전 중 수도 서울은 대부분 폐허가 됐으며 약 130만명이 집을 잃거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식량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2,500만명이 거주하는 화려한 현대적 대도시로 아시아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G-20 국가로서 2018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주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 지역 내 경제 강국, 글로벌 무역 중심지, 기술 혁신의 탄생지입니다. 안보와 주권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에 맞서며, 한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역동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극적인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업적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성공은 미국의 헌신으로 더욱 확대되어 왔습니다. 바로 양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파트너십이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도록 안정이라는 기반을 제공해 온 것입니다.

한미 파트너십은 지난 역사의 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수십 년에 걸친 확고한 협력과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 개발, 과학 및 기술, 경제 및 무역, 다양한 문화 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굳건한 방위 태세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첨단 정예 군대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GDP의 2.7%를 국방비로 책정했으며 이는 지역 내 미국

세실 라일리 (CECIL RILEY) 중사

위 왼쪽:
1950년 10월 18일 전쟁 피해를 입은 서울의 한 주거지. 배경에 국회 건물이 보인다.

캐롤린 코넨 (CAROLINE COENEN)

위 오른쪽:
현재 서울의 덕수궁

R.V. 스펜서 (SPENCER) 소령

아래: 한국전 중인 1951년 6월 9일 행주에서 동생을 등에 업고 M-26 전차 옆을 지나가는 소녀

동맹국 중 가장 큰 비율입니다. 2018년 예산에서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여 약 400억달러 (전체 예산의 9.9%) 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호크, 패트리엇 PAC-3, F-35A, AH-64E 아파치, 추가 이지스 구축함 등 미국의 첨단 군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또한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과 같은 새로운 옵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조약을 개정하여 적재량 제한을 해제했으며, 이는 한국이 개량을 거듭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역량에 다양한 미사일로 대응하도록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2017년 한국군은 연례 한미 동맹 사령부 훈련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며 믿을 수 있는 진정한 군사 동맹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평화 유지와 안보 노력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로서 62만 5천명의 현역 병력 중 천명 이상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파병하여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번영하는 경제

오늘날 한국의 추진력은 혁신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미국 상품 수입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국제적인 기업을 일궈낸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육성한 한국은 현재 기술 인프라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과 창업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은 대체불가한 지역 내 미들파워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민주주의

2017년 수백만명의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는 헌법에 따른 원활하고 성공적인 정권 이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이른바 "촛불혁명"은 한국의 성공이 단지 경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더욱 신장시켜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뒷받침하는 번영과 안정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정치 사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출생한 한국인은 광화문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를 봤을 것입니다. 오늘날 할머니 세대가 된 그녀는 한국의 번영과 헌신 및 독창성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 민주주의에서 사람의 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한국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및 동북아지역

한미 동맹

쉴라 크레이그헤드 (SHEALAH CRAIGHEAD)

김성준 일병

왼쪽:
2017년 11월 7일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오른쪽:
2017년 10월 24일 캠프 험프리스의 제8기갑여단 제1대대를 방문한 한국 포병학교 대원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 가치에 바탕을 둔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상호 역량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견고히 지속되는 양국 관계와 한반도 수호를 위한 신념으로 뒷받침되는 한미 동맹은, 긴밀한 의사 소통 및 의사 결정 메커니즘의 강화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십

2017년은 정치 변화와 외교적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모두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북한의 도발이 증가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을 늘려 대량 살상 무기 (WMD)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고,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장착 가능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국가의 대열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지역 안보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를 갖고 한미 동맹이 상징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SCM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를 무모하고 파괴적이라고 규탄하고 수많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비롯한 모든 군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에게 포괄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에는 사이버전, WMD 대응, 한미 동맹의 미래 등의 주제에 관해 한미 정부간 여러 차례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억제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회의, 그리고 한국, 미국, 호주가 실시하고 유엔사 파견국 및 독일이 참관한 해양차단작전 등의 다자간 훈련도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속적인 한미 동맹

한미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일상적인 교류가 보여주듯이, 한미 동맹은 양자간 군사 및 외교 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훈련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등의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방어와 북한 억제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KEY RESOLVE) 와 을지프리덤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을 통해 한미 동맹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한반도 및 지역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 각지에서 평화 유지 활동, 안정화 및 재건

일러스트레이션: 조쉬 바인더 (JOSH BINDER)

2018년에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한반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재협상하게 됩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용 중 약 41%를 부담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중요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금 대부분을 한국인 근로자, 물자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 현지 건설업체에게 급여와 혜택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여러 차원에서 한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북한 위협에 언제라도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노력, 지역 안보 협력 프로그램,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통해 미국과 국제 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미사일 경보, 대잠수함전, 억제 작전 분야에서 이웃 국가와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협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한국과 동맹국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통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21세기 들어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내외에 안보를 제공하며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하도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와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개최된 우주협력 도상 훈련과 한미 사이버 실무 협의체를 비롯해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한미 동맹은 이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보다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2017년 3월 16일 부산 해군기지에서 열린 가상 사격 및 인질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인 미국 헌병과 한국 해군 특수부대 대원

유리아 워커 (URIAH WALKER) 병장

연합 미래 구축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요 역량 확보와 국방 개혁 등, 전환계획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연합사령부는 예정된 조직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각종 연합 훈련과 인증을 통해 시험을 거치고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양국은 한미 동맹 추진 지침 (Alliance Guiding Principles)을 마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의 연합 방어 태세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격동의 한국전을 거치며 형성된 한미 동맹은 양국과 국제 파트너 그리고 공통 가치를 위한 상호 의지에 바탕을 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유일무이한 파트너십 중 하나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양국을 하나로 묶는 굳건한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령부

한미 역량

2017년 10월 21일 서울 공군기지에서 열린 2017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중 미국 공군의 F-22 랩터 위로 비행 중인 한국 공군의 비행시범단 블랙 이글스

알렉스 폭스 에콜스 III세 (ALEX FOX ECHOLS III) 병장

미국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는 반세기 이상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지금은 확고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안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태세에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북한이 잦은 도발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연합사령부와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돼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준비 태세로 한반도를 지키고 (필요 시) 북한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군 자산의 개발과 배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미국의 다양한 해양, 공중, 지상 무기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역량과 연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

미국과 한국은 꾸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필수 장비를 완비한 군의 개발과 성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는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THAAD는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기권 내외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역량을 제공합니다. '전구안보전력프로그램' (Theater Security Packages)과 연계하여 성능을 발휘하는 THAAD는 그 자체로 억제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 동맹국, 유엔군사령부 협력 파트너를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은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최근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현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화가 완료되면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탄도 미사일은 전역 탄도 미사일을 상대로 보다 향상된 사거리와 명중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화는 현재의 다층 시스템 프레임워크와 맞물려, 탄도 미사일 방어용 전장을 강화하고 동시 억제 및 방어 역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무기와 탄약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육군은 유효 사거리 2~8km의 대전차 상부 공격 지능형 포탄인 한국형 상부공격지능탄 (KSTAM) 을 개발했습니다. 사거리가 연장된 이 탄도탄 덕분에 차량이 은폐·엄폐 상태를 유지한 채 적의 알려진 위치로 연속 사격함으로써 장애물이나 구조물 뒤에 숨은 목표를 상대로 효과적인 간접 화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중인 한국 제11사단 흑룡대대

권혁기 중사

한국 육군은 검증된 현대식 시스템으로 구성된 강력한 포병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은 신속한 기동 및 사격이 가능하고 사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155mm K9 자주포의 성능을 한층 개량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지키는 한미 동맹의 능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연합 및 합동 화력 자산의 통합과 동기화를 통해 더욱 신속히 화력을 투입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첨단 역량의 개발과 배치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한미 동맹은 주저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결의는 국제사회의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고도로 훈련된 연합군을 양성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억제 역량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전력 투입 및 대응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지키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억제력을 통해 정전을 유지하는 연합사령부의 핵심 임무를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과적인 억제력은 한미 동맹이 상호운용 역량을 조정, 개발, 실행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준비 태세를 지역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구체적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이를 동맹국과 적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두 가지 고유 역량, 즉 신속 전력 투입 (Rapid Force Projection) 과 신속 대응 (Rapid Response)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량을 통해 한미 동맹은 힘과 억제력을 분명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신속 전력 투입역량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신속히 무력을 투입하는 능력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다자 및 양자 훈련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동맹은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전투력을 공중 수송하여 태세를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억제 작전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육군은 2017년 9월 C-17 수송기를 이용해 미국 본토의 고속기동용 포병로켓시스템 (HIMARS) 을 한반도로 가져와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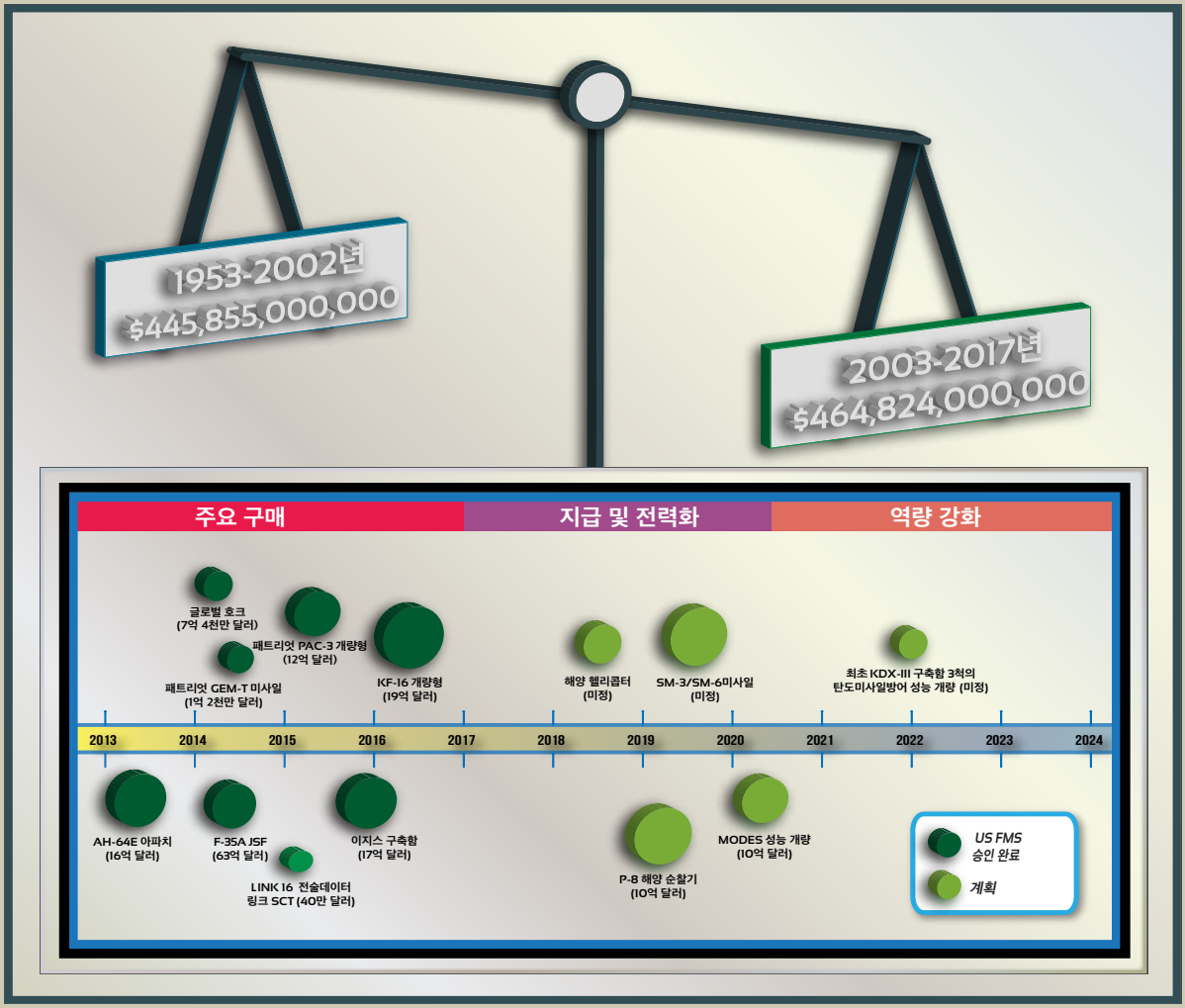
한미 공군은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통해 신속 전력 투입을 시연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여러 차례 공중 급유를 받으며 4천여 해리를 비행해 알래스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2017년 10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위해 한국에 F-35A를 보내는 한편,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TSP를 통해 신속 전력 투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속대응역량은 신속 전력 투입을 보완하는 역량으로, 한미 동맹이 정밀 원거리 타격 역량을 이용해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차단하는 능력입니다.

2017년 7월 5일 한미 육군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후 합동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미 동맹군은 한국의 현무2호 미사일과 미국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ATACMS) 을 이용해 한국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타격 역량으로 적의 도발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29일 북한이 또 다시 ICBM 시험을 진행하자 미국 공군 B-1이 한국 공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함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화력을 과시했고, 11월 29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군이 공중, 지상, 해상에서 합동 정밀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쉬 바인더 (JOSH BINDER)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



한국은 지난 15년간 그 전 50년 동안의 누적액보다 더 큰 규모로 미국 방위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지상에 배치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BMD) 와 더불어 미국 해군은 지역 내에 BMD 역량을 갖춘 함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 해군 함선에 장착된 모델과 대등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KDX-III 구축함 세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미국과 스탠더드 미사일-3(SM-3) 요격 미사일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M-3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더욱 기여할 전망입니다.

신속 전력 투입과 신속 대응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국제 사회는 물론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현대화와 목표의 투명성은 이 같은 한미 동맹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함과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수호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종합적 노력은 해상, 지상, 공중에서의 신속 전력 투입 및 신속 대응과 연계되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수호하며 국제 평화, 안보,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을 격퇴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한미 동맹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준비 태세를 갖춘 진정한 연합군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카마일 카실라 (KAMAILE CASILLAS) 하사

왼쪽:
2017년 7월 30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공군 B-1B 랜서 두 대와 10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 공군 F-15

오른쪽:
2017년 12월 13일 대천 사격장에서 스팅어 공대공 유도 미사일 실사격훈련중인 한국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리콥터

사진 제공: 한국 육군

2017년 10월 18일 한국 해군 함선과 함께 이동 중인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 호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스테덤 호

케네스 애바트 (KENNETH ABBATE) 2급 홍보 담당

역량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

매들린 브라운 (MADELYN BROWN) 하사

F-35A 라이트닝 II

주한 미대사관 대표회의 (Country Team) 의 핵심을 이루는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 (JUSMAG-K) 은 주한미대사 직속이며 미국 태평양 사령부 (PACOM) 예하 조직입니다. PACOM 안보 협력 조직인 JUSMAG-K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정부의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USMAG-K는 대사의 권한 하에 임무를 수행하며 폭넓은 국방 관련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적 방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현재 JUSMAG-K는 미육군 용산 기지에 본부를 두고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USMAG-K의 기원은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 윌리엄 맥켄타이어 다이 준장이 한국에 도착하여 고종의 수석 군사고문으로 임명됐던 18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 대한 근대적 군사 지원은 1945년 10월 시작됐으며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1950년 6월 25일 공식 창설됐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경제발전을 계기로 한국군은 군사원조 프로그램 (훈련과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원조) 이 아닌 대외군사판매나 직접상용판매를 통하여 미국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JUSMAG-K의 역할도 한국 및 한국군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국군은 진정한 성공 사례로서, 조선국방경비대로 출발하여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루는 세계적인 현대군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부응하고 한국군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1992년 주한 미 합동 군사지원단의 명칭이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으로 변경됐습니다.

한국이 정보 • 감시 • 정찰 (ISR), 탄도미사일 방어 (BMD), 공중 우위, 해양 안보 분야를 비롯해 동맹 간의 다양한 중요 군사 역량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화 260억달러 이상의 대외군사판매 (FMS)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미화 147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고, 미국 정부는 직접상용판매를 통해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에 미화 340억달러 규모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한국군의 AH-64E 아파치

사진: JUSMAG-K

2016년 7월 28일 환태평양 훈련 중 한국의 KDX-III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호가 13개 파트너 국가를 대표하는 40척의 함정 및 잠수함과 대열을 이루고 있다.

에이스 리움 (ACE RHEAUME) 1급 홍보 담당

최근 구매 사례로는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패트리엇 PAC-3 개량형, 이지스 KDX-III 구축함, F-15K 및 KF-16 개량형, F-35A 합동타격전투기, AH-64E 아파치 공격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투자는 한미 동맹의 전투 준비 태세를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공적인 한국 이양에 필요한 많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이 국방 현대화 요건에 부합하고자 꾸준히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기타 지역에까지 위협의 강도와 복잡성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은 가장 민첩하고 치명적이며 효과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 시 이를 격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정부, 군, 산업계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JUSMAG-K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위협보다 한 발 앞서 도발을 억제하는 역량을 함께 개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안보 지원 프로그램의 확보 및 실행과 더불어, JUSMAG-K는 한미 공동 개발 노력을 촉진하여 한미 동맹이 첨단 혁신과 미래 역량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공동 진행 중인 첨단 프로젝트에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 GPS 대전파방해 역량, 차세대 적외선 탐지, 자율 상황 인식 시스템, 공중 목표 위협의 탐지 • 추적 • 요격 능력 강화, 지하시설의 대량 살상 무기 (WMD) 제거, 지상 레이저 통신 등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협력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방위 파트너십으로 발전함으로써 한반도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 및 세계적으로 협력하며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의 안보 환경이 나날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JUSMAG-K는 앞으로도 민첩하고 대응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요건을 완벽히 지원할 것입니다. JUSMAG-K는 한국과 함께 지역 및 세계의 안보 협력과 지원을 조율하고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외군사판매/역량

현재 역량	미래 역량
글로벌 호크 (무인 항공기 시스템)	*한국 킬체인 지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지원*
이지스 KDX-III 구축함	*지속적인 ISR 강화*
F-35A 합동타격전투기	*공중 우위 강화*
AH-64E 아파치 헬리콥터	*해양 안보 강화*
KF-16 전투기 개량형	*추가적인 탄도 미사일 방어 역량*
다양한 탄약: (공대공, 공대지 및 대함 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	*한미 동맹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시스템 및 군수품*

출처: JUSMAG-K

주한미군의 혁신

미국신안보센터 (CNAS)는 "미래의 형성: 군-기술 우위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에서, 미국의 국방 우위는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 산업과 혁신의 막강한 기술 및 제조 역량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전투 병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신기술, 혁신적인 접근법, 획기적인 역량 활용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및 유엔군사령부의 파트너 역량과 결합하여, 고도로 역동적인 환경에서 각종 작전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 접근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역량 혁신 효과처 (Emerging Capabilities and Innovative Effects Division; EXD) 는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미국, 한국, 유엔사 파견국의 국방, 정부, 산업, 학계 조직과 고유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우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정전 기간은 물론 억제 실패에 따른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역량 활용과 혁신 효과 추구를 통해 한반도에서 사령부의 작전 및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군은 규모가 작고 유연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술 및 작전 수준에서 이러한 고유 역량은 작전부대의 파괴력을 확장하고 사령부의 전장 침투력을 늘리게 됩니다. 한편 전략적 수준에서 첨단 기술과 신역량의 통합은 한미 연합군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을 더욱 굳건히 방어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에게 있어 정기적 훈련은 전역에서 신역량을 시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술, 운영, 전역 차원의 훈련이 역동적인 작전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기술과 신역량을 조기 통합하면 역량 및 용량상 격차를 파악하고 사용자 레벨의 피드백을 즉시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파트너들은 EXD와 협력하여 주한미군이 "기술적 우위" 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EXD 교류 기관

- 비대칭전략그룹 (AWG)
- 부즈 앨런 해밀턴
-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 국방디지털서비스 (DDS)
- 국방혁신실험단 (DIUx)
- 국방위협감소국 (DTRA)
- 보건복지부 (HHS)
- 국방부 신속능력처 (RCO)
- 국방부 전략능력처 (SCO)
- 국내핵감시국 (DNDO)
- 조지아 공대 연구소 (GTRI)
-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 (JPEO-CBD)
-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LLNL)
- MIT 공대 링컨연구소 (MIT-LL)
- MITRE 코퍼레이션
- 국가핵안보국 (NNSA)
- 북서태평양국립연구소 (PNNL)
- 신속조달팀 (REF)
-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 한국 합참
- 한국 국방부
- 스탠포드대학

왼쪽:
2017년 6월 28일 세계적 철강 업체 포스코의 제조 현장을 방문한 브룩스사령관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EXD 는 미국 태평양 육군의 전략 효과부 (Strategy and Effects Directorate; FXD) 그리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자원 평가부 (Resources and Assessment Directorate; J8)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령부간 신속 역량 셀 (Rapid Capabilities Cell; RCC)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RCC 는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 역량 격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대량 살상 무기의 현장 특성화 및 이용을 위해 무인·자율 기술을 신속히 통합함으로써 전술 및 운영 레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신역량과 기술 실무의 통합은, 전장에서 각종 복잡한 난관에 직면하는 한미 동맹 및 유엔사에게 위험을 줄이고 상황 인식을 높이는 혁신적인 전력 강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EXD 는 파트너 국가들이 한반도에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가져오는 기회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 에너지를 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EXD는 과학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과학, 첨단 역량, 구매, 병참, 지속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특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EXD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방, 유관기관, 학계 파트너와 고유한 관계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험난한 난관과 잠재적 해결 방안

북한의 위협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한국, 동북아시아, 미국 및 미국령 태평양 영토, 환태평양 지역 파트너에게 유례없는 비대칭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EXD는 유사시 북한의 포대와 탄도 미사일을 발사지에서 파괴 및 요격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D는 또한 생물학전 가능성을 즉시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치밀한 생물학전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호하고 한국이 이러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다면 서울과 2,500만 한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마커스 피츨 (MARCUS FICHTL),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

2017년 5월 22일 캠프 스탠리의 지하 훈련 시설로 이동 중인 대원들과 화학무기 탐지 로봇

"한미 동맹은 전쟁을 통해 형성됐고 역사의 시련을 통해 굳건해졌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의 믿음직한 동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쉴라 크레이그헤드 (SHEALAH CRAIGHEAD)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11월 7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국제 사회 결의의 구심점

2017년 3월 16일 월례 원탁회의에서 유엔사 파견국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 브룩스사령관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 후 유엔안보리는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지휘 아래 유엔 회원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유엔사는 연합군을 이끌며 북한군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현재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을 수호하는 3대 사령부 중 하나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엔사 창설 당시 16개 회원국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고 추가로 다섯 개 회원국이 의료 지원을, 기타 32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 회복을 위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한국과 더불어 이들 나라의 헌신과 희생은 정전협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의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이들의 결의는 지속적인 인력 및 자원의 기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공동경비구역에서 전직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고위급 위원 13명과 만난 브룩스 대장

사진 제공: 주한미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를 보완하는 유엔사 후방사령부는 특별히 선발된 각국 장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엔사 후방사령부는 유엔과 일본 정부 간 유엔군 지위협정에 따라 다국적 사령부를 유지함으로써 캠프 자마, 요코타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가네다 공군기지, 화이트 비치 해군시설,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의 7개 유엔사 전략시설에 대한 함선, 항공기, 인력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 국회의원과 고위 장교들의 수많은 오리엔테이션 방문을 추가 지원하고 두 지역 파트너의 준비 태세와 결의를 보여주는 등, 회원국 간 유엔사 후방사령부의 작전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화나 협상 기회가 마련될 경우 유엔사는 북한을 상대로 1차 대화자 역할을 합니다. 2017년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의 북한 대표자에게 46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군은 오직 네 차례만 응신했습니다. 더불어 유엔사는 북한측에서 발견되는 전사자 유해의

션 K. 하프 (SEAN K. HARP) 중사

왼쪽: 2017년 6월 22일 용산 기지에서 열린 유엔사 유해 송환식

오른쪽: 공동경비구역에서 확성기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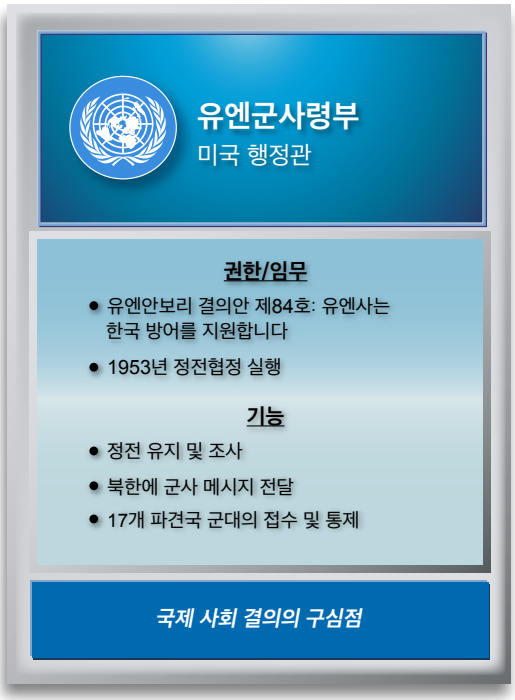
사진 제공: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은 유해 송환 절차를 평화롭게 그리고 품위를 갖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되면 예를 다해 처리할 것입니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지역 내 파트너와 국제 사회의 협력 및 합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엔사 역시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응하며 파견국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했습니다. 유엔사 사령관은 월례 대사 원탁회의에서 파견국 대사 및 연락장교를 만나 그들의 질문과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또한 북한 도발에 대응하여 파견국 대표들과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열린 대화와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파견국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추가적인 국제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여러 새로운 조치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캐나다와 미국은 유엔사 파견국, 일본, 기타 파트너국의 외교부 장관 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유엔사 회원국들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사는 파견국 및 기타 파트너국들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 원조를 수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대와 작전을 유엔사와 연계 및 통합하는 것은 바로 다국적 협조 센터의 역할로, 이곳은 국제 헌신의 중심이자 동맹국과 파트너의 1차 대화 채널입니다. 유엔사에는 현재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정규 파견된 장교, 부사관, 일반 병사의 수가 30명 이상이며 연락장교도 꾸준히 증가하여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사는 파견국과 한국 간의 방문군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파견국 군대의 유엔사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유엔사 임무에 기여하는 세계 각국의 대원과 가족들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훈련참여도 확대했습니다. 2016~17년 사이 회원국들은 한반도에서 실시된 주요 방어 훈련에 755명을 추가 지원했고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비회원국도 해군 기동 훈련에서 유엔사 및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과의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다원주의는 국제 질서의 핵심이며 유엔사는 한미 동맹의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다국적군입니다. 영구 주둔 중인 장교, 부사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원들은 한국 국민을 지원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엔사 교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율하며 한반도 진행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국을 방어할 유엔군을 추가로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유기적인 다국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령부

연합사령부

한미 동맹의 중심

2017년 11월 28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F-35A 라이트닝 II 앞에서 한국 공군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미국 공군

콜비 L. 하딘 (COLBY L. HARDIN) 상병

준비 태세와 역량을 보유한 한미연합사령부는 사령부 삼자 구조의 핵심이며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미 양국의 결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연합사는 북한의 위협을 강력히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확고한 동맹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한국 공군 F-15K 슬램 이글 두 대와 비행 중인 미국 공군 B-1B 랜서

알렉스 폭스 에콜스 III세 (ALEX FOX ECHOLS III) 병장

1978년 11월 7일 잭 베시(Jack Vessey) 장군의 지휘 아래 창설된 연합사는 한반도 전투 본부로서, 한국과 미국의 군 자원을 동원하고 동기화하는 통합적 연합 동맹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한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합사는 양국 지휘부로부터 전략 방향과 작전 지침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러한 독특한 지휘 구조를 통해 연합사는 양국이 제공하는 일관된 합동 전략 지침에 따라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의 구조, 우선순위, 조직은 한미 합참 간 연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와 한미 국방부 간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조율된 양국 합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한미 동맹 중심의 협의 과정을 통해 중요 연합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합사 양국의 국익과 연계된 지역 안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전, 공중전, 특수전 훈련의 증가는 연합군의 힘과 준비 태세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는 전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고강도 훈련과 더불어 연합사는 매년

구스타보 곤잘레즈 (GUSTAVO GONZALEZ) 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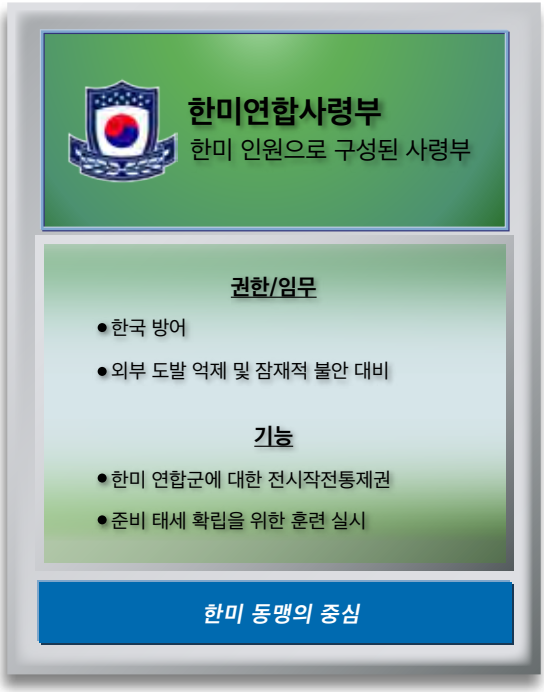
2017년 4월 7일 포항 공군기지에서 열린 터보 디스트리뷰션 (TURBO DISTRIBUTION) 훈련 중 한국 공군에게 교육 중인 미국 공군 사이버 기술 요원

김재웅 및 이지민

2017년 11월 17일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의 팀워크 이벤트에 참가한 미국 육군과 한국 공군 대원

을지프리덤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과 키리졸브 (KEY RESOLVE) 훈련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종류의 훈련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 훈련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 연합사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과 한국민, 주권과 안보에 대한 한미 동맹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강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는 또한 주한미군과 연합사가 연합으로 실시하는 공중전, 해전, 특수전 합동 야전 훈련인 독수리 훈련 (FOAL EAGLE) 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실시되는 독수리 훈련은 연합 구성군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지키고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연합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 3,600명이 추가 투입되어 2017년 4월부터 8주 동안 주한미군 및 연합사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4성 장군의 지휘 아래 있으나, 한국으로 지휘권을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적극 진행 중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유사시 한반도의 한국군과 미군은 한국 4성 장군의 지휘에 따르며 유엔사, 한국 합참 및 예하 사령부, 주한미군과도 계속 협력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부의 단계별 계획을 강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꾸준히 역량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사의 지휘 구조와 방향도 변화하는 전략 환경을 수용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본부를 옮기고 연합사는 서울에 잔류하는 사령부 재배치 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물리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연합사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하는 준비 태세는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연합사는 주한미해군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의 기지 공유 그리고 한국 해병대 및 공군과의 지속적인 연합 훈련 파트너십의 뒷받침을 받아, 전술 차원에서 연합사 본부 단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연합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미8군이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함에 따라 지상군구성군 사령부와의 통합은 앞으로도 두 육군 요소의 결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연합사는 미래지향적 비전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동북아시아의 안정, 안보, 번영을 위한 하나 된 목표와 신념이 변함 없이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변함없는 다짐의 살아있는 증거

2017년 8월 9일 KMEP 17-14 훈련 중 한국 해병과 함께 한국 수륙양용 장갑차에서 하차하는 미국 해병

아슨 S. 패터슨 (AARON S. PATTERSON) 상병

사령부

주한미군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 예하 통합군사령부로, 한반도 내 미군의 상급사령부이며 한국 합참을 상대로 연락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무장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 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한미 협력을 촉진하는 유연한 전력과 전략적 억제력을 동원함으로써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솔다 레예스 (ISOLDA REYES) 하사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항공기

주한미군은 태평양사령부의 3대 지주 중 하나로서 정전과 위기 시 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하여 즉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유엔사 소속의 미국 및 다국적 증원군을 수용, 대기, 이동,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 국민과 지정된 제3국 국민을 위한 비전투원 후송작전을 중심으로 작전 지원 역할도 담당합니다.

주한미군 대원들은 한국 및 유엔사 파견국 동맹군과 60년 이상 협력해 왔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정전협정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번영을 이루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 3만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의 실재 위협에 맞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5,100여 만명과 미국인 20여 만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은 육해공군과 해병 및 해안경비대 대원들을 최고 수준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국가 지도자들이 지역 내 긴장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한 옵션을 보유할 수

제니퍼 챈스 (JENNIFER CHANCE) 하사

2017년 8월 22일 THAAD 포대를 방문한 미국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 전략사령관 존 하이튼 대장, 브룩스사령관

있도록 강력하고 역량 있는 군대를 제공하며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주한미군은 부대 준비태세와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기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사령부는 미국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과 한국 미사일 현무 2를 동원하여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 한미 연합군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준비와 결의를 보다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지원했습니다. 10월과 11월 연속으로 한국 및 일본 전투기가 미국 B-1 폭격기를 호위하는 양자간 임무를 진행했고, 미국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내 합동 공중 훈련에 동원한 것을 비롯하여,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 훈련에 200대 이상의 군용기를 참가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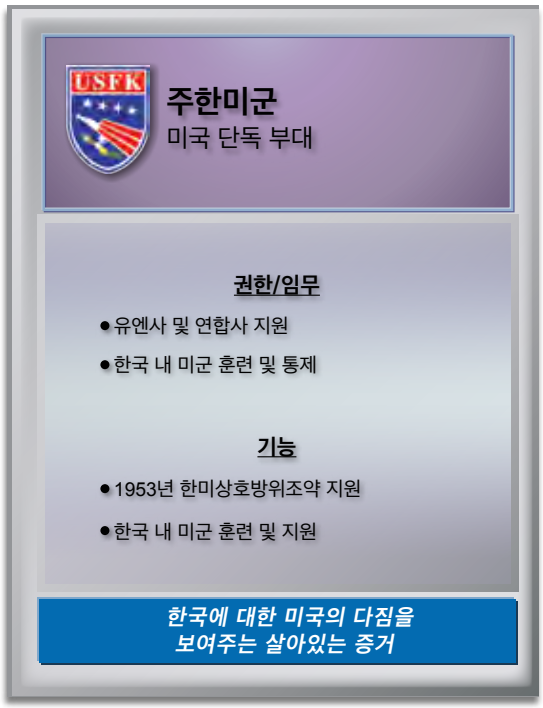
2017년 한반도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가 배치됐으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신속 배치되어 대기권 내외에서 최종 또는 종단 비행 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THAAD는 사령부의 기존 전역 탄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채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미군 역량을 한반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 기타 전역 전투 사령부, 미국 합참, 기타 미국 기관에 물자와 병력을 공급함으로써 연합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확대하고 도발 시 한반도에 추가 전력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군 사령부인 주한미군은 주한미대사관과 협력하여 한국 정부와 공조하며 미국의 국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령부의 활동 중에는 미국 해군 함정의 정기적 입항도 포함됩니다. 2017년에는 USS 미시시피, USS 미시건, USS 오하이오, USS 샤이엔, USS 칼 빈슨, USS 노스 캐롤라이나 잠수함, USS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각각 입항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대원들은 정비, 재보급, 휴식의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위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역량도 과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미래

2017년 주한미군은 대규모 이전을 계속 추진했으며 앞으로 서울 이남 두 기지에 전력의 대부분을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미8군은 용산에서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한국에서 역사적인 새 장을 열었습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 본부가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변함없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 및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다짐을 상징합니다. 동일한 목표와 가치 아래 단결한 주한미군은 적극적으로 억제력을 유지하여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주한미군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부단히 전진할 것입니다.



조쉬 로살레스 (JOSH ROSALES) 하사

2017년 12월 1일 비질런트 에이스 18 훈련 중 F-16 파이팅 팰콘과 비행 훈련 중인 미국 공군 F-35A 라이트닝 II

주한미군 구성군

미8군

사령관 마이클 A. 빌스 (MICHAEL A. BILLS) 중장

2017년 9월 20일 제7차 워리어 스트라이크훈련 중 건물 수색을 준비 중인 대원

패트릭 이킨 (PATRICK EAKIN) 병장

연합과 변화를 통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 보유

미8군은 주한미군의 지상군구성군으로 미국 태평양 육군 (USARPAC) 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PACOM) 의 예하 부대입니다. 미8군 대원들은 "아시아에 주둔한 미국 지상군"으로서 한국 육군과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연합 방어 및 합동 전투 역량 개발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준비 태세

미8군 준비 태세의 기반은 미국 본토에서 파병된 순환 부대의 통합에 있습니다. 기갑전투여단 (ABCT),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포병대대, AH-64 아파치 헬리콥터로 무장한 중공격정찰헬기대대 등의 순환 부대는 지상군구성군 사령부의 훈련 및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동시에 미육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8군의 수용, 대기, 이동, 통합 (RSOI) 능력을 보여주는 예로, 제18야전포병여단 일부를 비롯한 미국 본토 기반 부대가 연중 예고 없이 배치되었으며 2017년 9월에는 한반도에 부대를 긴급 전개하여 장거리 정밀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미8군은 2017년 3월 키리졸브 (KEY RESOLVE)와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등의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임무 지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2017년 11월에는 한반도 최대 규모의 워파이터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사령부 훈련에는 제2한미연합보병사단 (2ID RUCD), 한국 제17보병사단,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제1군단이 참여하여 한미 육군 대원들의 역량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했습니다. 기갑전투여단 워리어 스트라이크 (WARRIOR STRIKE), 제210야전포병여단의 워리어 썬더 (WARRIOR THUNDER) 와 같은 종합 훈련은 전투항공여단과 완전히 통합되어 전문성을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8군은 위기 및 전쟁 시 비전투원 후송작전 (NEO) 을 담당하는 주무 부대입니다. 2017년 포커스드 패시지 (FOCUSED PASSAGE) 와 커레이저스 채널 (COURAGEOUS CHANNEL) 등 두 차례의 NEO 훈련을 통해 미8군은 공중 및 해상 자산을 이용하여 미군 가족과 미국 시민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한반도 밖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이것은 NEO와 기타 태평양사 예하 부대를 통합한 첫 훈련이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연합군은 강력한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미8군은 성공적인 제2한미연합보병사단 (2ID RUCD)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 지상군구성군 사령부 (GCC) 와 통합하여 연합참모를 구축하고 연합 지상군구성군 사령부가 됐습니다.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8군은 2017년 10월 연합사령부 및 GCC 지휘통제체계 (C4I)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회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8군과 한국 육군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8군, 한국 제3군단 및 제1군단은 2년마다 연합 전술 회의를 갖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기술 및 절차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의 결과 미8군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포대를 성공적으로 배치하여 탄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공병대대를 추가함으로써 부대방호 역량도 늘렸습니다.

향후 계획

2017년 미8군은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인 시설 중 하나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8군 본부, 제65의무여단, 제501정보여단이 전체 및 부분 이전을 마쳤습니다. 2018년에는 제2사단 본부, 미8군 하사관 학교, 카투사 훈련소, 미8군 화생방 학교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여 1월에는 대량 살상 화학무기 (CWMD) 합동 플래너 과정, 2월에는 합동 효과 모델/합동 경고 및 보고 네트워크 (Joint Effects Model/Joint Warning and Reporting Network; JEM/JWARN), 7월에는 민감 장소 탐사 과정 (Sensitive Site Exploitation Course)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레이 이글 무인 항공 시스템 같은 새로운 장비 배치와 MLRS 포병대대의 추가적인 영구 배치로 미8군의 전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휘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역량을 갖춘 지휘관이 배출되어 미8군을 이끌게 됩니다. 앞으로도 미8군은 종합 전투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나갈 것입니다.

미8군은 현대적이고 치명적이며 고도로 훈련된 한국 육군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증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이킨 (PATRICK EAKIN) 병장

2017년 9월 21일 M142 고속기동용 포병로켓시스템에서 로켓을 발사 중인 미군

패트릭 이킨 (PATRICK EAKIN) 병장

패트릭 이킨 (PATRICK EAKIN) 병장

위 (오른쪽): 2017년 9월 28일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대원들이 내린 후 이륙 중인 UH-60 블랙호크

왼쪽: 2017년 11월 28일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실시된 제6차 포격 시험에서 발사 중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주한미군 구성군

미7공군

사령관 토마스 W. 버저슨 (THOMAS W. BERGESON) 중장

2017년 4월 26일 맥스 썬더 17 훈련 중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한국의 F-16 파이팅 팰콘

카를로스 히메네즈 (CARLOS JIMENEZ) 일병

미7공군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공군구성군 사령부인 미국 태평양 공군의 주요전술공군부대 (Numbered Air Force) 입니다. 위기 및 전쟁 시 미7공군은 주한미군의 공군구성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017년은 남북 관계가 악화된 한 해로 북한의 도발과 비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 공군은 가장 치명적인 공군 역량을 한미 동맹에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공적 임무 완수의 핵심 요소인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 공군의 구성군인 미7공군은 임무 달성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결의와 단호한 의지로, 엄선된 전략적 억제 옵션과 실전 수준의 훈련을 통해 정전협정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준비 태세

미7공군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 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7공군은 한미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억제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훈련 중 처음으로 진행된 맥스 썬더 (MAX THUNDER)는 한반도에서 실시된 연례 비행훈련중 역대 최대 규모로서, 항공기 131대, 미군 1,200명, 한국군 640명이 참가했습니다. 맥스 썬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공군 대원들은 공동으로 계획, 브리핑, 실행, 디브리핑하는 귀중한 기회를 갖고 한미 공군력 통합을 강화하며 협력을 증진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미국 공군,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처음으로 다자간 야간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연합 공중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험하며 준비 태세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미7공군의 제8비행단 및 제51비행단은 레드 플래그 – 알래스카 (RED FLAG – ALASKA) 로 편대를 파견하여 공중 반격, 차단, 근접항공지원, 대규모 배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7공군은 또한 한국 공군, 한미 해군과 함께 해상대침투작전연습에도 참가했습니다.

한편 미7공군과 한국 공군은, 네바다 주에서 진행되는 미국 공군 최고의 공대공 훈련인 레드 플래그와 동등한 수준의 제3차 비질런트 에이스 (VIGILANT ACE)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확대되어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와 F-35A/B 라이트닝 II는 물론 미국 해군 및 해병대의 전투기도 참가했습니다. 230대의 항공기가 참가한 이 대규모 훈련은 한미 동맹의 공군 역량을 과시하고 양국의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범용 공중전 패키지에 해당하는 선결 역량을 동원했던 기존 훈련과 달리, 이제 사령관들은 새로운 셋 더 포스 (Set the Force) 항공임무명령서 (ATO) 를 통해 더욱 신축성 있는 억제 옵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훈련에서 한미 동맹은 새로운 ATO를 성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공중 영역을 신속, 정확하게 장악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래

미7공군은 2017년 8월 미국 태평양 사령부, 미국 미사일 방어국, 주한미군, 미국 전략 사령부의 지휘관들과 함께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례 없이 이루어진 이 기자회견에서 지휘관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의 억제 수단인 연합 훈련의 지속적 실시를 강조했습니다. 미7공군은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8년에도 공군 자산 통합과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적과 싸우는 현실적인 위협의 구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공군 대원들은 지식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춘 조종사, 교관, 편대 지휘관, 정비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미7공군과 한국 공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항공기, 군대, 동맹국을 훈련 시나리오에 통합하고 현실적인 공중전 및 지상전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훈련에는 지휘 및 통제, 실시간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전자전 등 전투의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조종사에게 실시간 전투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지상군 대원들이 준비 역량을 시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우리 대원들은 치열하고 열악하며 운영성이 제한된 환경에서 현실적인 전투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ATO 설정을 시험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2017년 훈련에서 한미 동맹은 새로운 ATO를 성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공중 영역을 신속, 정확하게 장악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7공군은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 사이의 오랜 파트너십, 헌신, 우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훈련과 준비 태세 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7공군과 한국 공군은 앞으로도 자유의 최전선에서 동일한 목표 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한미 공군은 양국의 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를 안전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빅토리아 H. 테일러 (VICTORIA H. TAYLOR) 하사

2017년 10월 11일 베벌리 팩 18-1 훈련 중 군산 공군기지에서 경계 중인 미국 공군 중화기 사수

미7공군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2017년 세 가지 행사를 통해 이러한 전통을 기념했습니다. 먼저 군산 공군기지의 제35비행대대 "팬튼 (Panton)" (사진)과 오산 공군기지의 제 36비행대대 "패뷸러스 플라잉 프렌즈 (The Fabulous Flying Friends)" 는 비행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들 부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최초로 전투에 참가한 이래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동안 P-40 워호크, P-51 머스탱, F-4 팬텀을 비롯한 유명 전투기를 운용했으며 현재에도 막강한 F-16 파이팅 팰콘을 운용하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두 비행대대를 보유한 미7공군은 또한 가장 오래된 주요전술공군부대 (Numbered Air Force)로서의 전통을 기념하며 7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0년 11월 1일 하와이 공군으로 출발한 미7공군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시 곧바로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태평양과 베트남에서 전투를 치르며 역량을 구축한 미7공군은 정전협정을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1980년대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임무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상단 및 하단): 미국 공군

주한미군 구성군

주한미해병대

사령관 패트릭 J. 허머스맨 (PATRICK J. HERMESMANN) 소장

주한미 해병대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 해병대구성군입니다. 정전 기간 중 100명 미만의 소규모 본부를 운영하며 핵심 임무는 비상 시를 대비한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매년 진행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ULCHI FREEDOM GUARDIAN), 키리졸브 (KEY RESOLVE), 독수리 훈련 (FOAL EAGLE) 이 주한미해병대의 주요 훈련 무대입니다. 더불어 주한미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제3해병원정군이 연중 한국 해병 교환 프로그램 (KMEP) 행사를 위해 부대를 파견할 때 이를 지원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북 도서에서 열린 KMEP 17-14 훈련 중 싱글 로프 다리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는 한미 해병.

빅토리아 H. 테일러 (VICTORIA H. TAYLOR) 하사

해병대는 용산 기지에 주둔한 소규모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캠프 무적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캠프 무적은 한국 유일의 미국 해병대 기지이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훈련하는 미국 해병들에게 원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프 무적은 태평양 해병대 기지의 전시작전통제권 하에 있지만 주한미해병대가 태평양 해병대 기지를 대신하여 운영 정책과 합동 정책이 일치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해병대가 한국 해병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합 계획과 훈련이 양국에 최적의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연락장교 및 다양한 참모 기능 분야와의 상시 소통은 물론 한반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 참모 회담과 장성급 대응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한미해병대는 항법 및 전술 항공 통제 등 한국 해병대가 현재 개발 중인 분야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훈련을 조율함으로써 한국 해병대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해병대 사이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개별 훈련 부대 차원까지 이어지며 파트너 훈련 부대는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연합 해병대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 해병대는 소대부터 대대급훈련까지 28차례의 KMEP 연합 훈련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총 9,500여명의 미국 해병이 참가했습니다. KMEP에는 제3해병원정군 소속 부대, 한국의 제1해병사단 및 제2해병사단,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참가했으며, 주한미해병대는 이러한 훈련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포항, 백령도, 김포, 평창, 스토리 및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을 비롯한 한국

아래: 2017년 10월 13일 하와이 해병대기지에서 진행된 울프하운드 시스템 시연 중 한국 해병에게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미국 해병 한국어 통역 요원

이사벨로 타방길 (ISABELO TABANGUIL) 일병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 비상 시 한미 해병대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망라했습니다. 더불어 한미 해병대는 2017년 태평양지역 상륙전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두 해병대의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미 내년에 실시할 철저한 연합 훈련 계획이 마련됐으며, 주한미해병대는 태평양 지역 전략 파트너들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전투 기능 전 분야에 걸쳐 양자간 참여 지원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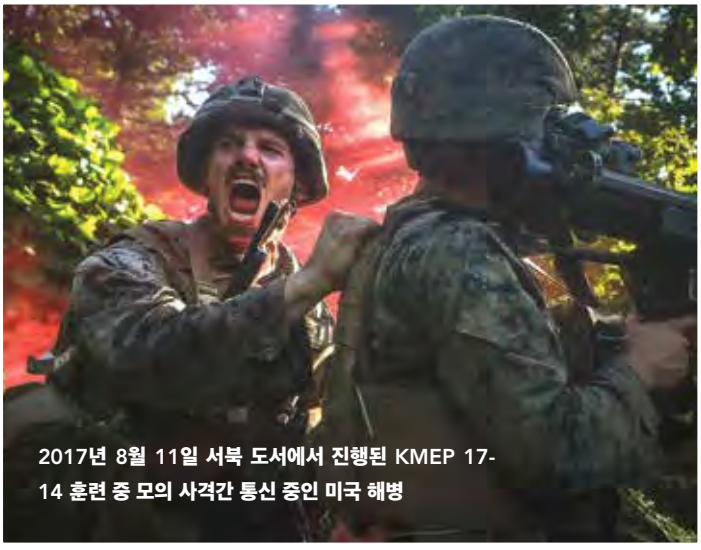
주한미해병대는 위기 발생 초기는 물론 위기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진 배치 미국 해병대를 주한미군이 즉시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엔사 해병구성군으로서 기타 동맹군이 훈련에 참가하고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로 통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를 지원하도록 지정된 동맹군 내 기타 공군 및 지상군 부대가 포함됩니다. 2017년 주한미해병대와 유엔사는 유엔사 파견국 군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 본부 내의 여러 절차를 재편성함으로써 주요 훈련 중 군 협력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주한미해병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과 유엔사 통합을 위한 구성군으로서 그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해병대는 한국 내의 모든 미 해병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서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어 및 훈련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사 두 곳의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한국 내 준비 태세를 위한 미국 해병대의 신념을 반영하며 훈련 부대 지원 역량을 크게 강화할 전망입니다. 주한미해병대는 내년에도 동맹 파트너와 함께 연합 훈련 부대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해병대 구성군의 파트너십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 주한미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는 향후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의 발전 방향은 물론 견고한 연합해병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의 공통 목표를 위한 참여의 구심점을 제공함으로써 한미 관계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양국 참여와 파트너 역량 개발을 위한 더욱 굳건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구성군으로서 주한미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파트너십의 우선순위에 대한 해병대 사령관 지침을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는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군사 활동 역량 개발을 위해 협력하면서 본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양국이 임무와 향후 전략 전망의 측면에서 통일된 목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해병대는 세계 최강의 상륙군이며 주한미해병대는 이 핵심 전투력이 한반도에 즉시 전개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한미해병대는 한국 내 다른 미군 부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평시 및 긴급 작전 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도 강력한 한미 양국의 해병대는 KMEP를 통해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명령 수령 즉시 연합하여 치명적인 상륙 전투력으로 사령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애런 S. 패터슨 (AARON S. PATTERSON) 상병



2017년 8월 11일 서북 도서에서 진행된 KMEP 17-14 훈련 중 모의 사격간 통신 중인 미국 해병

주한미군 구성군

주한미해군

사령관 마이클 E. 보일 (MICHAEL E. BOYLE) 소장

2017년 11월 12일 타격 훈련의 일환으로 국제 수역에서 B-1B 랜서 두 대 및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 중인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호,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USS 니미츠호 항모전단

앤서니 리베라 (ANTHONY RIVERA) 3급 홍보 담당

주한미해군은 미국 태평양사령부 (PACOM)에 해군력을 제공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주요전술함대 (numbered fleet) 인 미국 해군 제7함대에 소속된 주요 연안 사령부입니다. 주한미해군은 한국 해군의 굳건한 파트너이며 정전협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 해군 제7함대를 대표하는 주한미해군은 오랫동안 한미 해군의 상호운용성과 전역 내 해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 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약 450명의 미국 해군 대원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분의 1이 주한미해군 소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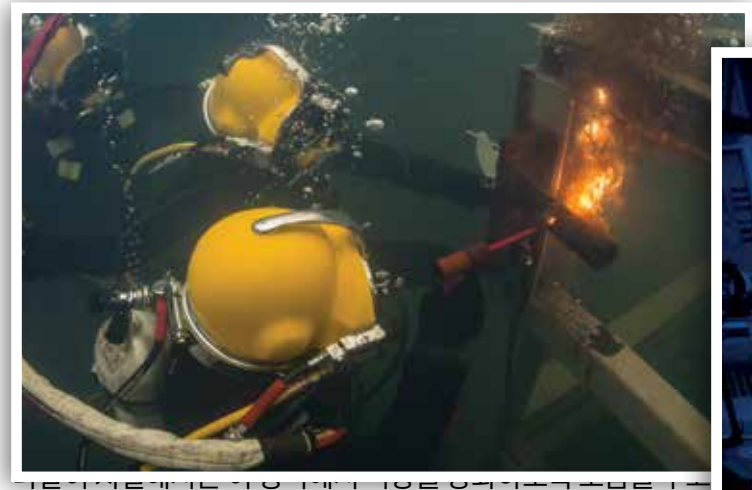
주한미해군은 정전 기간 중 주한미군 예하 미국 해군의 선봉 해양구성군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연합사령부의 해군구성군 부사령부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해군은 전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해군을 조율하고 한국 해군과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해상과 해안에서 해군구성군의 연합 전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의 해군구성군 사령부 역할을 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다국적 해군의 작전 및 훈련 참여를 뒷받침하고 지원합니다. 더불어 한국 내 미국 해군의 지역 사령부로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 사령관들에게 해군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명령을 받는 즉시 막강한 화력을 전투에 투입합니다. 한미 해군은 연합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약 20회의 양자 및 다자간 훈련을 통해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훈련인 해상대침투작전연습은

커티스 A. 해처 (KURTIS A. HATCHER) 3급 홍보 담당

2017년 3월 22일 독수리 훈련 중 한반도 동해상을 통과 중인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스테튼호

브레트 코트 (BRETT COTE) 선임 홍보 담당



조던 크라우치 (JORDAN CROUCH) 2급 홍보 담당

위: 2017년 3월 31일 독수리 훈련 중 진해에 위치한 한국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수병과 함께 수중 절단 기법을 훈련 중인 한국 해군의 수중건설팀

오른쪽: 2017년 10월 15일 다국적기뢰전 훈련 중 전투 정보 센터에서 경계근무 중인 어벤저급 소해함 USS 치프호의 해군

있습니다. 2017년 한미 연합 해군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해군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연례 다국적기뢰전 심포지엄 및 훈련 등 다자간 포럼에도 참여하면서 각종 다국적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주한미해군은 전역에서 활동하는 해군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유도 미사일, 고속 공격잠수함과 같은 미국 해군의 전략 자산이 정기적으로 주한미해군 본부에 기항 통지를 하며 기타 항공기 및 함선도 정기적으로 평택과 제주도 등 주요 항구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자 이에 대응하여 USS 칼빈슨 타격전단이 한국 해상에 배치되어 32일간의 작전을 완료하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한편 2017년 10월에는 USS 로널드 레이건호,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USS 니미츠호가 한미 해군의 여러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기타 호위함과 함께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근해에서 "항공모함 세 대가 참가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주한미해군의 미래는 최근 기지 이전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은 대규모 이전을 단행하여 부산에 위치한 한국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주한미해군은 한국군 기지에 본부가 위치한 유일한 구성군이 됐습니다. 이후 주한미해군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는 연합사 구성군 통합을 주도하고 협력, 상호운용성,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주한미해군은 2017년 9월 한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전 이후 미국 해군 부대에 수여된 첫 번째 대통령 표창이었습니다.

부산은 주한미해군 대원과 가족들을 열렬히 환영했으며, 이제 부산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힘들더라도 보람차게 복무하려는 젊은 미국 해군 대원들 사이에서 "최고의 주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며 결속력도 더할 나위 없이 강합니다. 한미 해군의 해상 연합 전력은 2017년 사상 최고에 도달했습니다. 2018년에도 10월에 예정된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비롯하여 여러 주요 훈련과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더욱 알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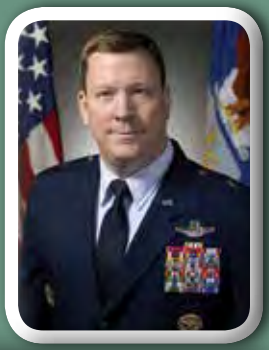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의 해양구성군은 강력하며,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항해합시다! **WE SAIL TOGETHER!**

주한미군 구성군

주한미특전사령부

사령관 토니 D. 바우언펜드 (TONY D. BAUERNFEIND) 준장



코디 멘덴홀 (CODIE MENDENHALL) 병장

2017년 3월 15일 키리졸브 훈련 중 연합 특수전 태스크포스 드래곤의 일원으로 한국 특수부대와 함께 경계근무중인 미국 특수부대 대원

주한미특전사령부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통합군 사령부로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하에 있습니다. 주한미특전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국 특수부대와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고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정전 위반 시 북한의 도발을 물리치기 위해 미국 특수부대를 계획, 지원, 통제하는 연합특전본부를 제공합니다.

주한미특전사령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며 특수 작전의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작전 중심 본부입니다. 이를 위해 3대 영역, 즉 특수부대 순환 병력의 임무 지휘, 다양한 한국 내 훈련을 통한 한국 특수부대와의 훈련 및 상호운용성 증진, 위기 시 대응 계획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특전사령부는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미 특수부대가 연합 작전을 위해 조직한 유일한 전역 특수전 사령부입니다.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및 한국 해군 특전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58년 창설된 주한미특전사령부 예하 제39특전부대파견대는 한미 특수부대 간 상시 연락부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한미특전사령부는 명령 후 수 시간 내에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복합 작전 환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특전사령부는 한국 특수부대와의 통합을 바탕으로 전 분야의 특수전을 실행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한국 해군 특전단, 한국 공군, 유엔사 파견국 특수부대와 조율하여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기 시에는 한국 및 유엔사 파견국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연합 특수전 구성군인 주한 연합 특수전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한미특전사령부는 한국 특수부대 파트너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이 모든 면에서 공고히 유지되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67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훈련을 위해 연중 한국에 전개되는 대규모의 미국 특수부대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각 특수전 사령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에서 훈련했습니다. 한편, 주한미특전사령부의 연합 특수전 연락반도 상호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연합 특수전 연락반은 미7공군 및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협력하여 공군구성군과 특수전구성군을 지원 및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2016년 2월 동계 전술 훈련 중인 한국 특수부대

사진 제공: 한국군

사진 제공: 주한미특전사령부

위: 2017년 2월 25일 한국에서 실시된 자유낙하 훈련 시 착륙중인 주한미특전사령부 소속 대원

아래: 2017년 3월 31일 독수리 훈련 중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공중 작전의 일환으로 낙하 실시 중인 한미 낙하산 부대원

전동혁 상병

사령부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주한미특전사령부는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 한미 특수부대의 훈련, 상호운용성 및 계획을 강화하여 한미 동맹의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 다국적 파트너가 한미 특수부대와 훈련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운용성을 늘릴 기회를 확대.
- 미국 특수부대를 동기화하여 노력의 통합을 보장하고 재래식 군 파트너에 대한 특수부대 지원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
- 억제 실패시 즉시 위기 태세로 완벽 전환.
- 전환 및 이전 계획을 완료하여 한국 파트너와의 사령부 공동 배치 추진.

주한미특전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즉시 전투에 임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즉시 위기 대응 역량을 활용하거나 한미 고유의 연합 특수부대 역량을 이용하여 한미 고위 지휘관에게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억제하거나 격퇴할 전략적 옵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 + 변환

부대 이전

김재웅 및 이지민

노사빈 및 이정희

왼쪽: 2017년 11월 20일 험프리스 기지의 새로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들

위: 2017년 2월 16일 험프리스 기지에 신설된 워리어 존 게임 및 각종 오락시설을 이용 중인 고객들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하에 실시된 미군 부대 이전은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이전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역사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반영합니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이 주한미군 이전 프로그램에 따라 수도권 및 서울 이북의 미군이 오산 및 평택 지역 중앙 허브와 대구 지역 남부 허브, 두 곳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국과 미국의 수년에 걸친 협력과 신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양국은 주한미군 이전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 이전 비용 107억 달러 중 92%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념비적인 이전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최근 여러 부지에 주요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상당 규모의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두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진행해야 할 작업이 아직도 다수 남아있는 가운데, 공사와 이동 인력 규모 면에서 핵심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이격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이곳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대의 트럭이 1,070만세제곱미터의 흙을 옮겨 면적을 약 14제곱킬로미터로 세 배 확장하고 655개의 신규 시설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들 시설과 더불어 340개의 기존 시설이 해체 또는 리모델링되면서, 1만 2천명에서 3만 6천명으로 증가하는 장병, 가족, 민간인 직원,

현재까지 완공된 주요 시설:

- 미8군 사령부
- 식당가를 구비한 대형 매점
- 의무대
- 치과 2개소
- 동물병원
- 초등학교 2개소
- 중학교
- 고등학교
- 가족용 고층 아파트 및 2세대용 건물
- 고위 장교 숙소
- 교회
- 어린이 발달 센터
- 폐수 처리장
- 비행장 관제소
- 지역 유통 센터
- 의무여단 본부
- 숙소
- 원격 시청각 센터
- 철도 종점
- 출입 통제소
- 차량 유지 시설 다수
- 통합 본부
- 대대 본부
- 메인 포스트 클럽
- 식당 2개소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

왼쪽: 2017년 9월 13일 시설 확장이 진행 중인 험프리스 기지의 항공사진

짐 맥기 (JIM MCGEE)

험프리스 기지를 워싱턴 D.C. 위로 투사하면 백악관, 알링턴 국립묘지, 의회의사당, 내셔널스 야구장까지 덮을 수 있습니다.

컨트랙터, 카투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캠프 험프리스는 대부분의 지원 시설이 본부 및 막사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심지에 해당하는 현대적인 "시티 센터"에는 각종 기지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의 가족용 거주 시설 및 학교에 인접해있고 북쪽에는 막사와 차량 유지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군 기지 중 한 곳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시설 관리 사령부와 제106동물병원의 이전과 더불어, 2017년에는 미8군 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하여 병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반도 내 미군의 핵심 구성군 중 하나인 미8군의 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것은 전체 운영상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은 변화와 이전을 위한 야심 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2연합보병사단 사령부, 신규 매점, 원스톱 전출입 센터, 우체국, 도서관, 차량 유지 시설, 소규모 사격장, 운전 교육장, 출입 통제소, 부대 훈련장, 그리고 장병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한미군, 유엔사, 한국 해병대, 제65의무여단, 제1통신여단, 극동공병대, 미8군지원단, 제19인사중대, 제1구역 및 2구역 민간인 자문 센터, 제501정보여단, 제411군수지원대대가 연말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부대 이전 프로그램은 남쪽에 위치한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에 보다 가까운 곳으로 미군을 재배치하고 통합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안정을 지원하며 향후 방위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017년 4월 27일 험프리스 기지에 신설된 제니퍼 M. 모레노 취학아동 센터의 야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스테파니아 파달리노 (STEFANIA PADALINO) 및 브라이언 윌리엄스 (BRYAN WILLIAMS)

지역 사회 + 변환

지역 사회 관계

2017년 10월 27일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논에서 농부들의 쌀 수확을 돕는 한미 해병대

티파니 에드워즈 (TIFFANY EDWARDS) 병장

한미 관계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고유하며, 오랜 역사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신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이 확장됨에 따라 대원들이 한국 주둔지의 지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기회도 함께 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역 사회 프로그램은 관계 구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한국 지역 주민과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미 동맹의 든든한 뒷받침이 됩니다.

티모시 M. 블랙 (TIMOTHY M. BLACK) 1급 홍보 담당

2017년 10월 24일 창원 진해 여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미국 해군 대원

사령부의 지역 사회 관계 프로그램은 매년 수천 종류가 진행되며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원들을 주변 지역 사회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매년 주한미군은 현지 학교와 고아원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수천 시간의 영어 강습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경쟁이 심한 한국 교육 제도에서 한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는 중요한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어민으로부터 배우고 함께 교류하는 기회는 학업은 물론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지 바로 밖에 있는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유대감을 쌓고 상호 우정과 지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 사회 관계 행사에는 매년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있습니다. 이들 대형 전시회를 통해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한국을 지키는 한미 동맹의 장비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초에 계룡대에서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은 한국군이 1950년 남침한 북한군을 제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나눠온 38선 이북으로 몰아낸 날을 기념하는 축제로, 한국군의 역사와 현재의 기술 수준 그리고 수십 대의

전투 차량이 전시됩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이 막을 내리면 ADEX 에어쇼가 서울 외곽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항공기가 모두 전시되며 시범 비행을 통해 한미 동맹의 공중 역량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미군 대원들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제공할 자리를 마련하여 매년 중요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한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미군 대원들에게 문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하고 자금을 후원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대원들은 2~3일에 걸친 투어를 통해 한국 곳곳의 문화 및 역사 명소를 탐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는 태권도 캠프는 물론 전라도와 제주도 여행이 포함되며 여기서 대원들은 오징어 낚시, 과일 절임, 불교 사원 방문 등의 전통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원들이 한국의 마음과 정신을 경험할 때 이들이 활동하는 나라의 문화와 국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활발한 지역 사회 관계 프로그램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령부 각 차원에서 중요하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주한미군과 대원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관계는 사령부의 임무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쉘 U. 블레샘 (MICHELLE U. BLESAM) 병장

왼쪽: 2017년 11월 30일 동두천의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나르는 미국 육군 및 카투사 대원

알렉스 폭스 에콜스 3세 (ALEX FOX ECHOLS III) 하사

오른쪽: 2017년 10월 20일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곡예 비행 후 열광적인 팬들의 환호에 답하는 미국 공군 F-22 랩터 시범 비행팀 조종사

주한미군 지역 사회 프로젝트

주한미군은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한반도 전역에 주둔한 대원, 민간 직원, 가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활기찬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 (GNP) 은 문화 장벽을 허무는 동시에 미군 대원들과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 사회 사이의 신뢰, 상호 이해, 우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자원 봉사 활동, 지역 사회 봉사, 문화 이벤트를 통해 건설적인 인간적 교류를 촉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전용 멘토십인 투게더 (TogetHER) 가 있으며 여기서는 동료 및 지휘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간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투게더는 정기적으로 모임과 점심을 지원하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주요 지휘관과 소통하고 통찰력을 나누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공통의 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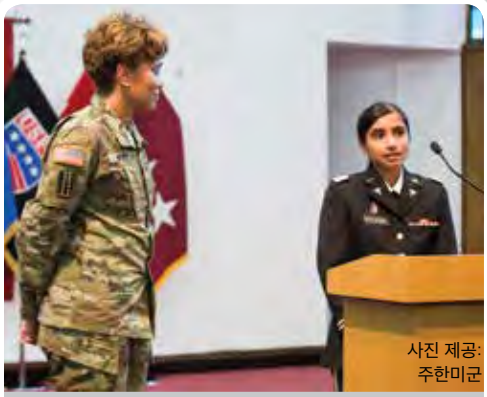


사진 제공: 주한미군

9월 21일 군인과 민간인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관점에서 토론하는 멘토십 그룹 투게더 (TogetHER) 를 방문한 나자 Y. 웨스트 중장. 웨스트 중장은 제44대 미국 육군 의무감이자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육군 의무감이다. 그녀의 리더십 강연에 브룩스 대장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사회 + 변환

같이 갑시다!

미래 지향적 동맹

2016년 8월 23일 용인에서 나란히 펄럭이는 한국과 미국 국기

켄 스카(KEN SCAR) 하사

한미 동맹에게 변화는 낯설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부터 냉전 종식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까지, 한미 동맹은 변화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지원하며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따라 한미 동맹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야 합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신세대들은 한미 동맹에 실용적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동맹의 생존과 효과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신세대 사고, 나날이 긴밀해지는 한반도와 세계 각국의 관계에 어떻게 적응하고 동시에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다국적 협력

한미 동맹은 파견국 및 국제 파트너와의 강력한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 21개 나라가 유엔군에게 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들 나라의 아들딸 3,959명이 한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까지도 이어져 현재 16개 파견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16개 파견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국제 파트너와의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합된 모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은 다자간 참여와 국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주한미군은 유엔사와의 일상적 협력을 더욱 강화했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유엔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국제 지원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한미 동맹에게 한국에 대한 다자간 지원을 조율하는 채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상군에게는 다국적 군대의 사령부만이 가능한 역량의 폭과 깊이를 제공합니다. 한미 동맹에게 추가 자원이 필요할 때에는 파견국들이 참여하여 공중, 지상, 해상 작전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경험했으며 그 밖에 수많은 다른 상황에서도 다국적 참여가 준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령부는 합동 훈련에 대한 파견국들의 적극적 참여 의사를 환영했으며, 앞으로도 참여확대와 결속 강화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자간 지원은 여러 국제 파트너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 지역 내외의 이해 당사국들과 협력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북한 정권이 아니라 한국의 동맹국들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다국적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비전

한국에서 세대 차이는 세대간 정치 및 문화 트렌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 지표입니다. 한국의 구세대들은 전통적으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젊은 신세대들은 국가 안보, 북한, 한미 동맹 등 정치적 이슈에 있어 사안별로 독립적인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와 이해는 대체적으로 미국과 궤를 같이하며 이들의 견해는 정당 노선이나 역사적 적대감보다는 정책 내용과 외교 스타일에 더 좌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미 동맹에게 향후 지도자, 정책 결정자, 대중 영향력 행사자가 될 신세대들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양국 관계를 재편할 협력의 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고 포용적인 한국민들은 국방, 통일, 국제 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정책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미 파트너십은 양국을 하나로 묶는 인간 대 인간 관계를 늘 우선시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더욱 긴밀히 상호 연결됨에 따라 사령부도 보다 용이하게 메시지를 공유하고 신세대와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동맹

한미 동맹이 미래로 전진함에 따라 양국은 현재 남북 대치 상태를 넘어서는 장기적 한미 협력 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평택과 대구 지역에 두 곳의 중앙 허브를 건설하는 이전 계획을 통해, 한국에 지속적인 주둔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및 아시아 내 다른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단순히 북한의 도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동맹은 외교, 경제, 그리고 대민관계의 성장을 상징하며 이는 워싱톤에 있는 미 지도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지역 내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양국은 엄청난 상호 이익을 실현했으며 앞으로도 수십 년동안 공동의 노력을 통해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확고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국제 평화 유지 노력, 경제 번영, 민간 협력, 학술 교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국방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안정과 평화는 기타 수많은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가능케 합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과 함께 대테러 및 해적 소탕 작전을 진행하고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을 증진하는 등 중요한 파트너로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빈 W. 피크 (ROBIN W. PEAK) 2급 홍보 담당

(왼쪽부터) 2017년 10월 29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 본부에서 열린 다자간 회의에 참석한 브룩스사령관, 미국 합참의장 조세프 F. 던포드 주니어 대장,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가쓰토시 가와노 제독, 한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 주일미군 사령관 제리 P. 마르티네즈 중장

한미 동맹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한미 동맹의 범위, 깊이, 강도를 확대하고 강화할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양국은 기존 군사 협력 및 협조 채널의 유지를 통해 잠재적인 지역 및 글로벌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글로벌 영향 관계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계속해서 평화, 안정, 안보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18 대한민국 전략 다이제스트

언론 문의는 공보실 (+011 82 2 7913 4661) 로 연락하십시오. | 저희 웹사이트 (www.usfk.mil) 를 방문해보십시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사령부 전략보좌관단 (Commander's Strategic Initiatives Group) 전략커뮤니케이션처 (Communications Strategy Division) 에서 발행하는 사령부 출판물입니다. 편집 내용은 평문으로서 사령부 산하 기관의 공동 노력을 반영하며 폭넓은 전파를 지향합니다. 내용이 항상 미국 정부 혹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각 출처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유엔군사령부 | 연합사령부 | 주한미군사령부